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총기 47년  
2018년 3월 30일  
음 2월 14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운)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2년 제221호

## 법성사, 도심 중생교화 도량으로 재건설된다

인선정사 현장방문, '북항 재개발사업' 따른 맞춤형 포교 기대



▲ 법성사 조감도



▲ 법성사 공사현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2월 13일 금년말 완공 예정인 법성사 신축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당부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자리한 법성사는 부산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역에서 옛 북항까지 이

어지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성사는 북항 재개발에 따른 유동인구의 유입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포교를 위해 노후화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역점사업인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만들기에 동참함을 물론이며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서는 실천불교 종단으로 도심 가운데 사원을 두고 중생 교화를 하고 있다. 총지중의 중지와 함께 부산역 주변의 도심 불자들에게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훴' 진언 소리와 함께하기를 서원하며 동구지역 포교에 기대가 높다. 공사현장을 방문한 통리원장 인

선 정사는 현장 감독관인 김병구 건설국장에게 "노고가 많습니니다. 준공일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안전공사를 당부했다.

법성사는 총기 7년(1978) 2월에 부산 남구 대연2동에서 3층 건물을 임대해 설단 불사를 봉행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자재(自在) 서원당으로 개설하였다.

하정 정사가 자재서원당의 초대주교를 맡았다.

법성사 주교 대자행 전수는 총기 10년(1981) 4월에 지금의 자리인 동구 초량동 대지 90평에 목조 기와집 2층 1동으로 이설하며 법성사로 개칭하였다.

이후 총기 12년(1983) 4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사원을 증, 개축하였다. 법성사는

법정, 정원심, 묘흥, 해광을 거쳐 지금은 법선 정사가 주교를 맡고 있다.

신축되는 법성사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현 위치에서 주거복합건물로 재건된다. 대지면적 690㎡ 건축면적 501㎡ 연면적 5893.6㎡ 지하1층 지상 14층 철근 콘크리트조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며 공동개발 방식으로 건축 중이다. 금년 말 완공 예정이다.

법성사 인근 재개발은 부산광역시의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기능을 다한 재래식 부두를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바뀌 낙후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기폭제로 삼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2월에 첫 삽을 떴다. 옛 연안여객부두에서 4부두까지 153만2천㎡의 부지에 친수공간과 오페라하우스, 마리아, 국제여객터미널,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병구 건설국장

## 봉 축

### 총지중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 봉행

4월 12일 14시 총지사

법공대종사의 제12대 종령 추대법회가 4월 12일 14시 총지사서 봉행한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제12대 종령추대법회 위원장으로 법회 준비와 손님을 맞게 된다.

불교총지중은 지난 1월 18일 승단총회를 열고 제12대 종령에 법공(法空)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1943년 포항 출생으로 총기원년 총지중에 입교하여 제10대와 제13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방송 이사, 불교TV 이사 등을 역임했다.

## 인선 정사, 성남 양지동 제1복지관 방문

올해부터 사회복지재단에서 노인정·어린이집·도서관 운영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겸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3월 7일 성남 양지동 제1복지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노인정 대표 최순철,

주민자치단체장 박동섭, 부위원장 강현숙, 바르게살기위원회장 박석순, 지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인선 정사는 복지관 1층 노인정의 지역

어르신들 80여 분들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참석하신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복지관 운영과 지역에서의 역할 등을 소개받았다.

노인정에는 남 25명, 여 55명이 있고 그 중 30명 정도가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다. 노인정 최순철대표는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물과 점심까지 대접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로도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다.

인선 정사는 "어르신들이 바르게 대접받는 것이 바른 나라인데 조금의 시대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나마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행복합니

다."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바랐다.

어린이집 정동숙원장은 "노인정 어르신들은 쌀과 양말 선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수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밀반찬 배달도 하고 있지만 노인정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쌀 보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지동 제1복지관은 건축면적 768.3㎡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총지중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정(191㎡)과 어린이집(195㎡), 도서관(191㎡)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은 하루 1백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김태원계장



▲ 격려하는 인선정사



▲ 복지관내 도서관

### 중/조/법/어

오래지는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오래도록 지은 약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

### 지/면/안/내

3면 스승심화교육 3면 정각사 다도회 탐방 6면 법천사 탐방 11면 왕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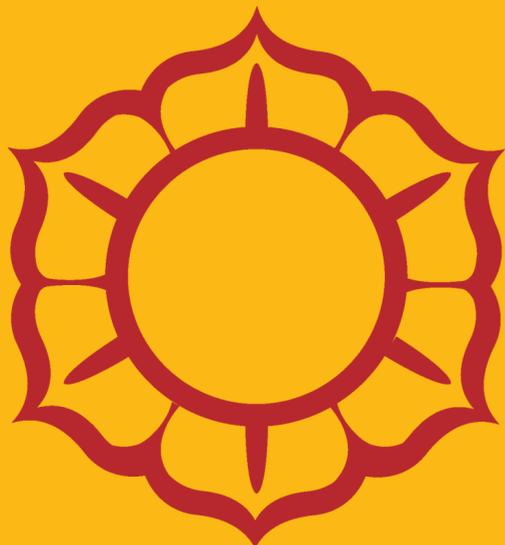
## 제91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총기 47년 4월 18일(수요일) ~ 19일(목요일)

장소 총지중 통리원

대상 총지중 전국 사원 승직자



#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원위치 찾는다

## 불상 바닥 시료 채취 비교 작업... 문화재청 “8월 결과 토대 보존”



▲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지난 2007년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통일신라 마애불상의 원위치를 찾는 연구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불상 주변 지역 정비와 안정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인 마애불 원위치 추정 연구에서는 불상 바닥 부분에서 지름 254cm·길이 5cm인 시료 5개를 채취한 뒤 주변 암반에서 얻은 시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연구원은 마애불 불두 활동방지 시설 설치, 석축비탈면 등 주변 지반 안

정화,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이 마애불상은 지난 2007년 5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열암곡 석불좌상(경북유형문화재 제113호) 일대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오뚝한 곳날과 아래쪽 바위 사이의 간격이 5cm에 불과해 큰 화제를 모았다.

8~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존재가 확인된 뒤부터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총 무게가 70~80t에 달하는 등 워낙 무거운 불상을 세우는 입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90도로 돌려 와불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경주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연구를 맡겨,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마애불을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일단 불상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애불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4월 13~14일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깨어난다

## 제58회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법보종찰 해인사는 4월 13일 오후 4시부터 14일까지 1박 2일동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인 제58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8년째 이어오고 있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누리에 펼치기를 기원하는 법회이며 문화행사이다.

행사는 13일 오후 4시 해인사 입구 비석거리에서 불보살, 용호신중, 역대 조상영가를 모신 가마를 들고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로 도량으로 모셔오는 시련(侍勸) 행사를 시작으로 인로왕변, 오방변, 향로, 오색기불기 대형, 태극기 대형과 십바라밀기, 청사초롱 등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저녁 공양과 예불 후 대령관육과 심금을 울리는 회심곡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8시 20분부터 마음치유학교 교장인 해인스님의 초청법문과 국악그룹 이상의 공연,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대장경을 알 수 있는 영상 상영 후에는 철야정진으로 산사의 밤을 밝힌다.

행사 당일인 14일에는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 후 대적광전 앞 담마당에 패불을 봉안하고 법보전에 모셔진 팔만대장경 조성,



▲ 고려팔만대장경 행사(2017년)

장경관전 건립, 고려팔만대장경 수호 공덕주들을 기리는 위패를 이운해 모신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와 친도의식 후 진행되는 팔만대장경 정대행진은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관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관의 도형을 머리에 이고 해인법계도를 따라 도는 사람들의 행렬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한다.

부대행사로는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단청 나무껍질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 글씨 써주기, 대장경이운행렬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행사는 이틀간 해인사를 찾는 누구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 “신행혁신 확산, 우리가 이끌어요”

3월 11일 동국대학교에서 제5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가 열렸다. 국내외의 포교현장에서 불법 흥포에 앞장서온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행혁신, 붓다로 살자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2000년 3월 설립된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18주년과 제 5회 포교사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하였다.

지홍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은 법어를 통해 포교 일선에서 전법활동에 매진하는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부처님께서도 불자의 제 1대 사명은 전법이라고 했습니다. 전법을 전념으로 또 큰 원력을 가지시고 매일 또는 때에 따라서 시간을 내고 자비를 들여서 원력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 포교사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주인공입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제 7대 포교원의 핵심 과제인 신행혁신 운동 ‘붓다로 살자’에 포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행혁신 선언문과 ‘붓다로 살자’ 발원문을 낭독하였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을 포교사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포교사단은 올해부터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을 현대화하고, 행정사무를 매뉴얼화해 포교 활동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과 포교부장 가섭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신행혁신 선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포교의 의지를 다진 포교사들이 앞으로 불교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되며 우리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행복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나갈 것을 거듭 다짐했다.

# 불교사회복지 발전 위한 ‘2018 불교 사회복지 편람’ 발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경스님)이 전국의 불교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이하 ‘법인’), 시설(이하 ‘기관’)의 정보를 총 망라한 ‘2018 불교사회

복지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우편 및 온라인, 전화 응답을 통해 실시한 불교사회복지전수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제작한 이 편람에는 조사에 응답한 163개의 법인과 920개 기관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총무원장 설경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상과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이 편람이 불교사회복지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및 기관의 소재지, 연락처, 종사자현황, 시설 규모와 종류 등의 기본 현황이 담겨있으며, 2011년 발간했던 편람의 결과와 비교한 지역별·영역별 분포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가 성장하

고 확산됨에 따라 산재된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수치화된 객관적 기초자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침서로써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전국의 법인 및 교구본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불교계법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7.4%, 경상권 37.9%, 시설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42.7%, 경상권에 33.2%가 집중되어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 41.6%, 영유아(어린이집 포함) 18%, 장애인 11.4%로 나타나 불교사회복지의 대상이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한부모·건강가정 분야의 시설이 증가하며 다각적인 복지시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전세형	3/5	30,000
관성사	황성녀	3/8	10,000
	인선	3/19	20,000
기로스승	해정	2/26	10,000
	원봉	3/16	10,000
	지선행	3/16	10,000
	상지화	3/19	10,000
	수증원	3/19	10,000
	밀공정	3/19	10,000
	총지화	3/19	10,000
	법수원	3/19	10,000
	선도원	3/19	10,000
	법지원	3/19	10,000
	일성혜	3/19	10,000
	불멸심	3/19	10,000
	사홍화	3/19	10,000
	안주화	3/19	10,000

동해사	탁상달	3/14	20,000
밀행사	무명씨	3/14	10,000
백월사	진평	3/6	5,000
법천사	장인숙	2/21	20,000
	무명씨	3/19	10,000
법향사	박미경	3/19	10,000
삼밀사	우귀연	3/17	30,000
성화사	이태연	3/13	20,000
	이학열	3/13	10,000
수인사	정순득	3/15	10,000
실보사	이순옥	2/27	10,000
	이순옥	3/8	10,000
실지사	박병성	2/27	20,000
	조성우	3/7	10,000
	정경자	3/8	10,000
일원어린이집			
	김용미	2/26	10,000

하재회	2/26	50,000	
구미자	2/28	10,000	
정각사	변순개	2/28	30,000
	안한수	3/11	10,000
지인사	허성동	3/9	30,000
	승효제	3/16	10,000
총지사	김성민	2/26	1,000,000
	무명씨	3/13	50,000
	손경옥	3/15	10,000
	원당	3/16	10,000
	모심해	3/16	10,000
	신용도	3/19	10,000
	박정희	3/19	10,000
	이수경	3/19	10,000
화음사	무명씨	2/22	10,000
	무명씨	2/22	10,000
	무명씨	3/5	10,000

무명씨	3/7	10,000	
최영미	3/12	50,000	
강승훈	3/12	5,000	
강승민	3/12	5,000	
무명씨	3/13	10,000	
무명씨	3/13	10,000	
홍국사	지정	3/16	20,000
사원명무기명			
박필남	3/15	10,000	
김갑선	3/19	10,000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통리원장, 지방사원 방문과 인사발령 사원 안전점검 및 교화 현황 파악



▲ 종령 사서국장 임명

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3월 12

일 인선사를 방문하였다. 인선사는 지난 포항 지진때 직접적인 지진 피해를 입은 곳으로 수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원과 요사 안전점검을 겸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통리원장은 3월 13일에는 정각사와 관음사를 순회 방문하여 사원의 어려운 점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정각사에서는 특락전 조성에 관해 교도들과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통리원장은 3월 19일 실시사를 방문한 가운데 사원 교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충기 47년 2월 1일자로 통리원 김병구 소장을 재무부 건설국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법성사 신축 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발령하였다.

2월 28일 제138회 중앙총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종령사서법에 따라 진화사 법성상사를 3월 1일자로 종령 사서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불교충지종 스승 심화교육 3월 20일~22일 실시 밀교교리, 종조법설집 과정으로 진행



불교충지종 중앙교육원(화령 정사)에서 시행하는 충기 47년도 제1차 스승 심

화 교육이 본원 통리원에서 진행됐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전라 교구 60

세 이하 교화스승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충기 47년도 심화교육은 밀교교리(화령 정사) 밀교사, 충지종의 밀교교리, 종조법설집(법경 정사)의 과정이며 80분 1강 1점 총 12점을 획득해야 한다.

스승 심화교육은 매년 2차례 나누어 시행되며 2017년도 첫 개강 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차 교육은 사원 불공기 간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재단 충기 47년 제1차이사회 개최 재단 이사 선임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폐원결의



▲ 바라밀공부방 원생(2007. 4. 13)

충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인선 정사)은 충기 47년 3월 16일 통리원에서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해 2017년도 결산을 심의, 가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임기만료(충기 47년 2월 28일)된 제138회 중앙총의회 이사 후임으로 최명현, 김용주, 함영욱, 이현자 이사를 선임 또는 선임하였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4월 18일까지이다. 이사장은 "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들은 위탁 운영을 통해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포교 방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포

교 일선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또한 "우리 교도 자녀들도 재단 산하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폭넓은 인재 영입을 희망했다.

이사회는 부산 정각사 경내 364.3㎡(110평)의 규모로 '바라밀 공부방'으로 최초 개소(2005년 6월)하여 13년간 운영되어온 '바라밀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부강)'를 폐원 결의했다. 바라밀센터는 지역 청소년의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밀미달누적이 장기화 되면서 폐원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 찬불가 제2집 녹음 원만 회향 찬불가 14곡 사원에 보급, 디지털 음성공양



불교충지종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은 불교충지종 찬불가 제2집 녹음을 3월 21일 마무리하며 원만 회향하였다.

마니 합창단은 찬불가 14곡을 녹음해 사원에 보급하므로서 디지털 음성공양을 하

게 되었다. '불교충지종 찬불가 제2집' CD 음반 수록곡으로는 충지종 의식곡과 함께 중단 찬불가, 일반 찬불가 1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기 반주로 편곡한 음반은 비매품으로 충지종 전국 사원에 찬불가보

급용으로 코드 악보와 함께 배포된다.

마니 합창단 최영아 단장은 찬불가 녹음을 회향하면서 "음반제작 기획상 전 단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몇 명만 뽑아 녹음작업을 하여 단원들께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잘되고 녹음도 맘에 들어 그나마 안심입니다."라며 "찬불가를 들어보고 다들 좋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지종 통리원은 금년 말에 '불교충지종 찬불가 제3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녹음은 부산 경남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이 맡는다.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인선 정사 참석, 한국문화체험 사업보고 받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설정 스님은 3월 29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에서 불기2562년 제3차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날 참석한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해외불교 인사 초청 한국문화체험 사업보고를 받았다. 인건으로 선정된 (가

칭)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 개최의 건과 정계전 전통등 전시사업 연등회 이란 관련 건을 심의하였다.



탐방인터뷰

# 정각사 다도회 - 차공양 봉사

## “사람의 향기도 차 향기처럼 향기로운을 실천으로 보여준다”

차 향기와 함께 피어나는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차전에 담아내는 곳이 있다. 정각사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도회다. 정식으로 출범한지 4년 정도가 되면서, 교도모임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 열린 통신원 워크숍에서 다도회 회원들이 차공양 봉사를 했는데 다과도 손수 준비해와 훈훈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정각사 다도회 회원 7명은 열정으로 뚝뚝 뚝쳐어는 곳이다. 봉사를 자리만 있으면 찾아온다. 정각사 교도로 불공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차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도회 단장을 맡아 봉사 계획을 세우며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김윤정 단장에게 '정각사 다도회의 연혁과 활동, 취지를 물었다.



### 다도회 봉사활동이 왜 좋나요?

다도를 정식으로 배우면서부터 단장을 맡아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도를 배우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좋아지고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덜렁거리던 성격이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합창단 단장이후 무력하던 일상생활에 다도라는 시간이 활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정각사 봉축 범회 날 대중공양 후에 회원들이 차 공양 봉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차 한잔하시면서 덕담도 나누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 기억에 남는 회원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회원중에 김유원(67) 보살님을 보고 있으면 '나이 불문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경숙 보살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각사 다니는 어느 날 다도와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열심히 수업 듣고 봉사 다니고 조각보도 만드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무엇하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액이 상당하여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후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인정받는 머느리가 되어 지금은 식구들도 절에 간다하면 좋아라 합니다.

### 앞으로 하고 싶은일이 있다면?

다도가 예법으로 인식되어 편하게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와서 차 한잔하는 것으로 다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쉬워 배우기 시작한 다도 수업이 이제는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배운 계능으로 차공양봉사 열심히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해마다 행사를 통해 차봉사와 회원들이 한뫼 한뫼 정성들여 만든 조각보를 판매한 금액으로 바라밀 공부방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오늘도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다도회모임을 통해 불공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가 지 결되어 활동하면서 행복해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모임이다. 차 향기와 같이 사람의 향기도 이렇게 향기로운 수가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알려주는 것 같다.

# 정각사 다도회



매주 금요일 다도교실 운영  
지도선생님 : 김정애

■ 부산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칼럼 지혜의 눈

# 자아 폭발과 자기 확장, 그리고 보살도(菩薩道)

## “이기주의 기반한 자아 폭발의 한계 넘어 자기 확장” “무아와 법신의 묘한 작용으로 대승 보살의 삶 실천”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인가 이타주의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적절히 협력하는 이타주의적 정신을 잘 발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가 수백만 년 전 출현한 이래 오늘날 현대 문명을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어울림이 있었다. 왜냐하면 개인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전 인류가 공생 공영하는 아름다운 미래는 아직까지도 이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전 인류가 공생 공영하는 아름다운 미래는 아직까지도 이상에 머물러 있다. 각종 불화에 따른 다툼과 전쟁 따위가 그칠 날이 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신본주의(神本主義) 사교에 신음하던 인류는 마침내 인본주의(人本主義) 혁명을 통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됐다. 인류가 지향하는 길에 장애가 되는 철저한 외부 세력 내지는 절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적 욕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는 6천 여년 전 인류가 자아를 확립하고 자연과 분리된 시점을 '자아 폭발'이라 부른다. 자아 폭발 이전의 인류가 그야말로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면 자아 폭발 이후에는 경쟁의식과 차별상에 고통받는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세계 내 존재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조망이 부족할 때 다른 자아 폭발은 세계를 인간의 편리대로 재편하려 했으며, 그 결과 세계를 왜곡하고 파괴해왔다. 그러한 자아 폭발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제 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우주와 함께 하는 연기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확장' 도모**

문제 해법으로 불교는 일찍이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관념을 포기하는 일을 제시해 왔다. <금강경>이 이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의 4상(四相)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상(관념)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과 세계의 복합적인 관계를 조망하는 진실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와 함께 하는 연기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자기 확장은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아 초월의 역동적인 만남이어서 개별 욕망의 실현에 중심을 둔 자아 폭발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확장은 욕망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소욕지족과도 구분된다. 개인의 욕심을 커다란 조망 속에 원대한 행원(行願)으로 바꿔 얼마든지 적극적인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확장은 세계와 공감하고 공명하는 무아(無我)와 법신(法身)의 묘한 작용이다. 있는 곳 어디서나 천변만화의 창조성을 발휘하며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승 보살의 삶이야말로 자기 확장의 전형일 것이다.

김봉래 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

### 지상 설법

# 착한 일이 오래 가도록

“

보살은 모든 악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악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끊고 소멸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모든 착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착한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발심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바르게 행하며, 모든 착한 법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오래 머물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더욱 더 크게 넓히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발심하여 바르게 행한다.

— 『불교총진』 중 「화엄경」

”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정진

착한 일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나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정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정진(正精進)이라 하셨습니다. 정정진은 바른 정진이란 뜻이며, 바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진이란 선행을 베풀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진이라고 하면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열심히 불공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진정한 정진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선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정진하며 자기만 깨닫는 것은 작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를 닦아 궁극적으로 타인을 향한 이타행을 하는 것, 그것이 정진이며 큰 수행입니다. 수행과 정진에 앞서 먼저 깊은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심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신심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올바른 굳건한 신심을 가졌을 때 그 다음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신심은 큰 바다를 건너는 배에 곧잘 비유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법과 경전도 배에 비유합니다. 이 배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는 신심이요, 노는 정진입니다. 노를 젓지 않는다면 고해(苦海)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공덕의 저 언덕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와 노 젓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공덕을 일으키는 뿌리

신심은 공덕을 일으키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가, 줄기에서 잎사귀와 꽃이 그리고 꽃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 없는, 깊고 굳건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악한 뿌리에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신심 다음으로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과 삼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유컨대 학생이 학교에 의지하지 않고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바른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오직 시험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사회성과 인간성을 길러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공덕을 닦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로지 공덕 성취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신심, 좋은 실천이 아닙니다. 공덕 성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몸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보귀의와 깊은 신심이 정진의 바탕

삼보를 믿고 의지하며, 정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사바세계, 현실의 고통세계이며, 저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태도는 옳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곧 정진력이자 법력입니다. 생활 속의 수행법문으로서 일상 가운데 공덕을 짓고,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정진이 됩니다.

정진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진의 말씀처럼 착한 일이 오래 가도록 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정진

은 나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업을 짓지 않고 착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나쁜 인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악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끊고 소멸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지었더라도 참회의 정진을 해나간다면, 그 과보는 작게 오거나 아예 악과보의 씩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르게 하는 정진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공하고 염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원에 나와 불공하는 것이 정진

정해진 불공을 제대로 지키고 사원에 나오는 것도 정진입니다. 불공을 하고 진언을 외우고 염송하는 것은 공덕의 밑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불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불공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예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유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중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 서원사항 >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 2. 사업 원만 발원
- 3. 취업 원만 발원
- 4. 건강 원만 발원
-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 7. 업장 소멸 발원
-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 10. 참회 발원
-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 14. 지혜 총명 발원
-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1

#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자재보살특징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



법상정사 사성제와 연명의료 3

# 불교의 윤리관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

### 시무외자 관자재보살

『대승장엄보왕경』에 염마천자가 성관자재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게송이 나온다. 대자재길상 대비관자재보살 연화왕계 귀명하나이다.

능히 유행의 원을 배풀어주시고 대위신력을 갖추시어 지극히 포악한 자를 항복시키고 어두운 악취에 밝은 등불 되시니 보는 자는 모두 두려움 없애지고

—중략—

가장 뛰어난 지혜는 산과 같고 보배를 배풀어 못 생명들을 제도하시고 가장 뛰어난 대길상으로 복과 지혜를 갖추어 장엄하시고 아버지께 들어가시면 청량한 땅으로 변화시키시니 여러 천인들이 모두 다 공양 올리고 시무외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중략—

칼과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일체의 두려움 없음을 배풀어주시니 권속들이 위요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뜻과 같이 이루어지고 마치 마니보를 얻음과 같을이라.

—중략—

두려움 없애주시는 명주께서

일체의 번뇌등 가지가지로부터 모두 해탈케 하시고 저 티끌수와 같이 많은 백전삼마지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경계를 열어 보시어 여러 악도 중에서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시고 보리도를 성취하게 하시나이다.

이 게송에서 관자재보살을 시무외자로 부르고 있다. 시무외는 다른 사람을 액난에서 구하고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뜻으로 보시바라밀의 무외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생이 겪는 두려움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은 아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이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욕망으로 인한 고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자재보살은 중생이 겪는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원하는 소원을 성취케하여 두려움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주는 분이다.

이처럼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무외시를 배풀어 주는 분'으로 관자재보살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법화경』 「관자재보살보문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은 위급한 환란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능히 두려움 없음을 배풀어주나니, 이런 까닭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이르기 두려움 없음을 배풀어 주시는 분이라 부르니라.

역시 관세음보살을 '두려움 없음을 배풀어 주시는 분' 즉 '시무외자'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승업경』에서는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문훈문수금강삼매의 지음이 없는 보력으로써, 지방삼매의 육도중생들과 비양이 동일하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종의 무외공덕을 얻게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금강삼매의 묘한 힘으로써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한다고 하였다.

역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고뇌를 받고 있는 일체 중생이 고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항상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정명하면 화난(火難)수난(水難)풍난(風難)도장난(刀杖難)악귀난(惡鬼難)가해난(伽藍難)원적난(怨賊難)의 칠난에서 해탈을 얻게되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항상 공경히 생각하면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愛)진(貪)치(瞋)삼독

에서 벗어나고, 몸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양하면 생남(生男)·생녀(生女)케 한다고 설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구체적 액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자재보살이 육도에 구도현신 할 때 육도 중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열거하고 관자재보살이 갖가지 대위신력과 상스러운 신상장엄을 나타내어 육도 중생들을 고난에서 구도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처럼 관자재보살의 대자비의 구제력은 끝이 없으며 이러한 일체 중생을 고난과 액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자대비 구제력은 관자재보살이 대위신력과 무량한 복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생구제의 위신력과 복덕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선남자여, 이 관자재보살은 수없이 많은 백천 구지나유다의 중생들을 구제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는데 항상 설 틈이 없고, 대위력을 갖추어 여래보다 훌륭하느니라.'라고 하여 관자재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애쓰는 대비원력과 대위신력을 찬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자재보살은 대자대비의 원력과 위신력으로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멀어여 주는 시무외를 배풀어주는 보살이라고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설하고 있다.

윤리학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좋다 또는 나쁘다 혹은 어떠한 부분을 행하는 것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판단을 내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이라는 대상은 개인의 행하는 것이거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형태 등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행위를 "업(業)"이라고 한다.

업이라는 의미는 카르마(karma)의 산스크리트 어원은 'k'에서의 '하다'라는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업도 내면의 '의도(cetana, 思)', 그

말하지 않는다. 그 중에는 몸으로 일러 짓는 삼업(三業)이 있다.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깊음을 받게 한다. 입에는 사업(四業)이 있고, 뜻에는 삼업(三業)이 있다.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깊음을 받게 한다."라고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설법하였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설법한 업에는 몸(kaya)으로 짓는 신업, 입(vaca)로 짓는 구업, 뜻(manas)으로 짓는 의업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또 다시 몸으로 짓는 신업에는 세 가지의 업이 있다.

### 불교적 측면에서 윤리적 판단의 대상은 반드시 마음의 작용인 의도를 동반한 활동을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업의 본질이다.

런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해 생기는 결과인 '영향력'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내면의 심리상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내면의 의도를 동반하지 않은 활동은 불교에서 이야기 하는 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물의 움직임은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불교적 측면에서 윤리적 판단의 대상은 반드시 마음의 작용인 의도를 동반한 활동을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업의 본질이다.

업의 본질이 발동하여 행해지는 업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 그에 따른 인과응보를 받는다.

다시 말해 의도를 지니고 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선악업에 따라 생사 인과가 서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업이다.

『중이합경』에 "만일 일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값을 받되 현재에서 받거나 후에서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일러 짓는 업이 아니면, 나는 이는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고 경계 되었다.

중생에서부터 곤중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는 살생, 남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투도, 어떤 대상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여자를 범하는 사음(邪淫)이다.

이것을 몸이 고의적으로 짓는 세 가지의 업 행위로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입(vaca)로 짓는 구업에는 네 가지의 업이 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하는 망언, 인간 시키는 말을 하는 양설, 욕설 또는 악한 말을 하는 악구, 꾸며대는 말로 부적절한 말, 거짓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가어이다.

이것을 입이 고의적으로 짓는 네 가지의 업 행위로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뜻(manas)으로 짓는 의업에는 세 가지의 업이 있다.

남의 재물이나 내가 필요한 생활도구를 살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고자 하는 마음인 탐사, 중생을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인 질에, 사된 견해, 개인적인 조건, 업과 과보를 믿지 않는 마음인 사견이다.

이것을 마음이 고의적으로 짓는 세 가지의 업 행위로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정정사 한국불교이야기 3

# 고려 시대의 불교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

통일 신라 말의 어지러운 정치 속에 탄생한 고려 태조 왕건(877-943)은 고려의 건국이 부처의 가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불교를 보호하고 많은 사당을 건립했다.

태조는 지방 선종의 지도자인 수미산파 이음을 왕사로 모시으로써 그의 협력을 받아내었음 뿐만 아니라 당시 화엄종의 양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회랑의 협력도 얻어냄으로써 지남살 신라 봉건지배체제의 이념인 교종 세력까지도 포섭했다.

또 후삼국 통합 직후에는 전승지인 후백제 지역 눈산 천호산에 개태사를 창건하였는데 이곳에 미륵삼존의 석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륵신앙이 흥성하던 후백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태조가 시행한 숭불정책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고려 최후

의 왕인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믿지 않은 왕이 없을 정도였다.

불교는 이처럼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교'의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마침내 제4대 광종(950-975) 때 승과 제도가 시행됨으로 승려지도자를 선발하는 국가제도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의 고려 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천태종을 일으킨 대각국사 의천이다. 왕자의 신분으로 불교에 귀의한 그는 송나라에서 유학하면서 받아들인 천태종을 고려에 이식하였다.

의천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고승으로 보조국사 지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눌이 등장할 무렵의 고려불교는 국교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나 동시 에 타락의 양상이 노골화되었던 시점이었다.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지눌은 이 당시에 폐단이 많았던 고려불교를 재정립하

려고 노력하였다.

지눌의 노력으로 당시 무익한 분쟁이 많았던 선종과 교종간의 대립이 종식되었고 실천수행이 지향됨으로써 고려불교가 발전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

고려 후기의 불교는 왕실과 권력자들이 결탁하여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소자, 양조, 축산, 고려대 등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취하며 날로 타락해감에 따라 불교는 성리학자와 신진사대부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 배척론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심화시키고 집대성한 것은 성리학자이며 급진적 사대부세력의 중심인물인 정도전이었는데 당시 왕실 기복적인 불교행사가 나라의 재정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의 이론은 진보적인 견해였다. 그의 논리적인 불교 배척론은 고려 지배계급의 이념이었던 불교를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대각국사 의천

이러한 결과로 불교는 고려 왕조 멸망 이후 조선시대에 배척당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 밀교유물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서울 종로구 창신2동 626-3번지  
시대: 조선시대

이 불상은 현재 종로구 창신동 지장암 대웅전의 삼신불상(三身佛像) 중 중앙에 있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1924년 강제희(姜在勳) 거사가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앞은 높이가 1175cm달하는 중형의 목조불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상에서는 푸른 명주바탕에 붉은 글씨로 쓴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이 발견되었다. 그 발원문에서 이 불상의 원 봉안처는 조선시대 왕실의 부녀자들이 출가 수행하던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이며,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비(章烈王妃, 문성군부인 유씨/1576-1623)가 광해군과 세자, 세자빈, 본인 및 작소한 친정부모, 작소한 대군과 공주의 천도를 위해 모두 11존의 불상과 불화를 동시에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상은 11존상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유일한 예에 속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 그때 그 시절 4월 (총기 10년 ~20년)

<p>총기 10년(1981) 4월 21일 경강공회 개최. 총지사 도량에서 제17회 춘계 강공회를 개최하고 『대승이취유비리밀다경』 제6. 10악(十惡)을 원리(緣起)하고 10선(十善)을 취향(趣向)하는데 무량한 이익이 있음을 강설</p>	<p>총기 14년(1985) 4월 20일 『중조법설집』 출간. 중조재세(在世시) 메모형식으로 남기신 유교(遺稿)를 273로 정리하여 10,000권을 출간.</p>
<p>총기 11년(1982) 4월 13일 가사개작(家書改著) 봉사 봉행. 중령 및 대중사는 황색 금가사에 법의(法衣)는 자색(紫色)으로 하고, 스승 전원은 자색(紫色) 가사를 개작(改著)하고 봉사한다.</p>	<p>총기 17년(1988) 4월 11일 『경통밀교불교총지중』 증보판 발간. 총기 11. 2. 1. 초판 발행한 『경통밀교불교총지중』 책지를 수정증보하여 1만권을 발행.</p>

## 범자전언

Ya字 Ya字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𑖀𑖄𑖅𑖆𑖇𑖈𑖉𑖊𑖋𑖌𑖍𑖎𑖏𑖐𑖑𑖒𑖓𑖔𑖕𑖖𑖗𑖘𑖙𑖚𑖛𑖜𑖝𑖞𑖟𑖠𑖡𑖢𑖣𑖤𑖥𑖦𑖧𑖨𑖩𑖪𑖫𑖬𑖭𑖮𑖯𑖰𑖱𑖲𑖳𑖴𑖵𑖶𑖷𑖸𑖹𑖺𑖻𑖼𑖽𑖾𑗀𑖿𑗁𑗂𑗃𑗄𑗅𑗆𑗇𑗈𑗉𑗊𑗋𑗌𑗍𑗎𑗏𑗐𑗑𑗒𑗓𑗔𑗕𑗖𑗗𑗘𑗙𑗚𑗛𑗜𑗝𑗞𑗟𑗠𑗡𑗢𑗣𑗤𑗥𑗦𑗧𑗨𑗩𑗪𑗫𑗬𑗭𑗮𑗯𑗰𑗱𑗲𑗳𑗴𑗵𑗶𑗷𑗸𑗹𑗺𑗻𑗼𑗽𑗾𑗿𑘀𑘁𑘂𑘃𑘄𑘅𑘆𑘇𑘈𑘉𑘊𑘋𑘌𑘍𑘎𑘏𑘐𑘑𑘒𑘓𑘔𑘕𑘖𑘗𑘘𑘙𑘚𑘛𑘜𑘝𑘞𑘟𑘠𑘡𑘢𑘣𑘤𑘥𑘦𑘧𑘨𑘩𑘪𑘫𑘬𑘭𑘮𑘯𑘰𑘱𑘲𑘳𑘴𑘵𑘶𑘷𑘸𑘹𑘺𑘻𑘼𑘽𑘾𑘿𑙀𑙁𑙂𑙃𑙄𑙅𑙆𑙇𑙈𑙉𑙊𑙋𑙌𑙍𑙎𑙏𑙐𑙑𑙒𑙓𑙔𑙕𑙖𑙗𑙘𑙙𑙚𑙛𑙜𑙝𑙞𑙟𑙠𑙡𑙢𑙣𑙤𑙥𑙦𑙧𑙨𑙩𑙪𑙫𑙬𑙭𑙮𑙯𑙰𑙱𑙲𑙳𑙴𑙵𑙶𑙷𑙸𑙹𑙺𑙻𑙼𑙽𑙾𑙿𑚀𑚁𑚂𑚃𑚄𑚅𑚆𑚇𑚈𑚉𑚊𑚋𑚌𑚍𑚎𑚏𑚐𑚑𑚒𑚓𑚔𑚕𑚖𑚗𑚘𑚙𑚚𑚛𑚜𑚝𑚞𑚟𑚠𑚡𑚢𑚣𑚤𑚥𑚦𑚧𑚨𑚩𑚪𑚫𑚬𑚭𑚮𑚯𑚰𑚱𑚲𑚳𑚴𑚵𑚷𑚶𑚸𑚹𑚺𑚻𑚼𑚽𑚾𑚿𑛀𑛁𑛂𑛃𑛄𑛅𑛆𑛇𑛈𑛉𑛊𑛋𑛌𑛍𑛎𑛏𑛐𑛑𑛒𑛓𑛔𑛕𑛖𑛗𑛘𑛙𑛚𑛛𑛜𑛝𑛞𑛟𑛠𑛡𑛢𑛣𑛤𑛥𑛦𑛧𑛨𑛩𑛪𑛫𑛬𑛭𑛮𑛯𑛰𑛱𑛲𑛳𑛴𑛵𑛶𑛷𑛸𑛹𑛺𑛻𑛼𑛽𑛾𑛿𑜀𑜁𑜂𑜃𑜄𑜅𑜆𑜇𑜈𑜉𑜊𑜋𑜌𑜍𑜎𑜏𑜐𑜑𑜒𑜓𑜔𑜕𑜖𑜗𑜘𑜙𑜚𑜛𑜜𑜝𑜞𑜟𑜠𑜡𑜢𑜣𑜤𑜥𑜦𑜧𑜨𑜩𑜪𑜫𑜬𑜭𑜮𑜯𑜰𑜱𑜲𑜳𑜴𑜵𑜶𑜷𑜸𑜹𑜺𑜻𑜼𑜽𑜾𑜿𑝀𑝁𑝂𑝃𑝄𑝅𑝆𑝇𑝈𑝉𑝊𑝋𑝌𑝍𑝎𑝏𑝐𑝑𑝒𑝓𑝔𑝕𑝖𑝗𑝘𑝙𑝚𑝛𑝜𑝝𑝞𑝟𑝠𑝡𑝢𑝣𑝤𑝥𑝦𑝧𑝨𑝩𑝪𑝫𑝬𑝭𑝮𑝯𑝰𑝱𑝲𑝳𑝴𑝵𑝶𑝷𑝸𑝹𑝺𑝻𑝼𑝽𑝾𑝿𑞀𑞁𑞂𑞃𑞄𑞅𑞆𑞇𑞈𑞉𑞊𑞋𑞌𑞍𑞎𑞏𑞐𑞑𑞒𑞓𑞔𑞕𑞖𑞗𑞘𑞙𑞚𑞛𑞜𑞝𑞞𑞟𑞠𑞡𑞢𑞣𑞤𑞥𑞦𑞧𑞨𑞩𑞪𑞫𑞬𑞭𑞮𑞯𑞰𑞱𑞲𑞳𑞴𑞵𑞶𑞷𑞸𑞹𑞺𑞻𑞼𑞽𑞾𑞿𑟀𑟁𑟂𑟃𑟄𑟅𑟆𑟇𑟈𑟉𑟊𑟋𑟌𑟍𑟎𑟏𑟐𑟑𑟒𑟓𑟔𑟕𑟖𑟗𑟘𑟙𑟚𑟛𑟜𑟝𑟞𑟟𑟠𑟡𑟢𑟣𑟤𑟥𑟦𑟧𑟨𑟩𑟪𑟫𑟬𑟭𑟮𑟯𑟰𑟱𑟲𑟳𑟴𑟵𑟶𑟷𑟸𑟹𑟺𑟻𑟼𑟽𑟾𑟿𑠀𑠁𑠂𑠃𑠄𑠅𑠆𑠇𑠈𑠉𑠊𑠋𑠌𑠍𑠎𑠏𑠐𑠑𑠒𑠓𑠔𑠕𑠖𑠗𑠘𑠙𑠚𑠛𑠜𑠝𑠞𑠟𑠠𑠡𑠢𑠣𑠤𑠥𑠦𑠧𑠨𑠩𑠪𑠫𑠬𑠭𑠮𑠯𑠰𑠱𑠲𑠳𑠴𑠵𑠶𑠷𑠸𑠺𑠹𑠻𑠼𑠽𑠾𑠿𑡀𑡁𑡂𑡃𑡄𑡅𑡆𑡇𑡈𑡉𑡊𑡋𑡌𑡍𑡎𑡏𑡐𑡑𑡒𑡓𑡔𑡕𑡖𑡗𑡘𑡙𑡚𑡛𑡜𑡝𑡞𑡟𑡠𑡡𑡢𑡣𑡤𑡥𑡦𑡧𑡨𑡩𑡪𑡫𑡬𑡭𑡮𑡯𑡰𑡱𑡲𑡳𑡴𑡵𑡶𑡷𑡸𑡹𑡺𑡻𑡼𑡽𑡾𑡿𑢀𑢁𑢂𑢃𑢄𑢅𑢆𑢇𑢈𑢉𑢊𑢋𑢌𑢍𑢎𑢏𑢐𑢑𑢒𑢓𑢔𑢕𑢖𑢗𑢘𑢙𑢚𑢛𑢜𑢝𑢞𑢟𑢠𑢡𑢢𑢣𑢤𑢥𑢦𑢧𑢨𑢩𑢪𑢫𑢬𑢭𑢮𑢯𑢰𑢱𑢲𑢳𑢴𑢵𑢶𑢷𑢸𑢹𑢺𑢻𑢼𑢽𑢾𑢿𑣀𑣁𑣂𑣃𑣄𑣅𑣆𑣇𑣈𑣉𑣊𑣋𑣌𑣍𑣎𑣏𑣐𑣑𑣒𑣓𑣔𑣕𑣖𑣗𑣘𑣙𑣚𑣛𑣜𑣝𑣞𑣟𑣠𑣡𑣢𑣣𑣤𑣥𑣦𑣧𑣨𑣩𑣪𑣫𑣬𑣭𑣮𑣯𑣰𑣱𑣲𑣳𑣴𑣵𑣶𑣷𑣸𑣹𑣺𑣻𑣼𑣽𑣾𑣿𑤀𑤁𑤂𑤃𑤄𑤅𑤆𑤇𑤈𑤉𑤊𑤋𑤌𑤍𑤎𑤏𑤐𑤑𑤒𑤓𑤔𑤕𑤖𑤗𑤘𑤙𑤚𑤛𑤜𑤝𑤞𑤟𑤠𑤡𑤢𑤣𑤤𑤥𑤦𑤧𑤨𑤩𑤪𑤫𑤬𑤭𑤮𑤯𑤰𑤱𑤲𑤳𑤴𑤵𑤶𑤷𑤸𑤹𑤺𑤻𑤼𑤽𑤾𑤿𑥀𑥁𑥂𑥃𑥄𑥅𑥆𑥇𑥈𑥉𑥊𑥋𑥌𑥍𑥎𑥏𑥐𑥑𑥒𑥓𑥔𑥕𑥖𑥗𑥘𑥙𑥚𑥛𑥜𑥝𑥞𑥟𑥠𑥡𑥢𑥣𑥤𑥥𑥦𑥧𑥨𑥩𑥪𑥫𑥬𑥭𑥮𑥯𑥰𑥱𑥲𑥳𑥴𑥵𑥶𑥷𑥸𑥹𑥺𑥻𑥼𑥽𑥾𑥿𑦀𑦁𑦂𑦃𑦄𑦅𑦆𑦇𑦈𑦉𑦊𑦋𑦌𑦍𑦎𑦏𑦐𑦑𑦒𑦓𑦔𑦕𑦖𑦗𑦘𑦙𑦚𑦛𑦜𑦝𑦞𑦟𑦠𑦡𑦢𑦣𑦤𑦥𑦦𑦧𑦨𑦩𑦪𑦫𑦬𑦭𑦮𑦯𑦰𑦱𑦲𑦳𑦴𑦵𑦶𑦷𑦸𑦹𑦺𑦻𑦼𑦽𑦾𑦿𑧀𑧁𑧂𑧃𑧄𑧅𑧆𑧇𑧈𑧉𑧊𑧋𑧌𑧍𑧎𑧏𑧐𑧑𑧒𑧓𑧔𑧕𑧖𑧗𑧘𑧙𑧚𑧛𑧜𑧝𑧞𑧟𑧠𑧡𑧢𑧣𑧤𑧥𑧦𑧧𑧨𑧩𑧪𑧫𑧬𑧭𑧮𑧯𑧰𑧱𑧲𑧳𑧴𑧵𑧶𑧷𑧸𑧹𑧺𑧻𑧼𑧽𑧾𑧿𑨀𑨁𑨂𑨃𑨄𑨅𑨆𑨇𑨈𑨉𑨊𑨋𑨌𑨍𑨎𑨏𑨐𑨑𑨒𑨓𑨔𑨕𑨖𑨗𑨘𑨙𑨚𑨛𑨜𑨝𑨞𑨟𑨠𑨡𑨢𑨣𑨤𑨥𑨦𑨧𑨨𑨩𑨪𑨫𑨬𑨭𑨮𑨯𑨰𑨱𑨲𑨳𑨴𑨵𑨶𑨷𑨸𑨹𑨺𑨻𑨼𑨽𑨾𑨿𑩀𑩁𑩂𑩃𑩄𑩅𑩆𑩇𑩈𑩉𑩊𑩋𑩌𑩍𑩎𑩏𑩐𑩑𑩒𑩓𑩔𑩕𑩖𑩗𑩘𑩙𑩚𑩛𑩜𑩝𑩞𑩟𑩠𑩡𑩢𑩣𑩤𑩥𑩦𑩧𑩨𑩩𑩪𑩫𑩬𑩭𑩮𑩯𑩰𑩱𑩲𑩳𑩴𑩵𑩶𑩷𑩸𑩹𑩺𑩻𑩼𑩽𑩾𑩿𑪀𑪁𑪂𑪃𑪄𑪅𑪆𑪇𑪈𑪉𑪊𑪋𑪌𑪍𑪎𑪏𑪐𑪑𑪒𑪓𑪔𑪕𑪖𑪗𑪘𑪙𑪚𑪛𑪜𑪝𑪞𑪟𑪠𑪡𑪢𑪣𑪤𑪥𑪦𑪧𑪨𑪩𑪪𑪫𑪬𑪭𑪮𑪯𑪰𑪱𑪲𑪳𑪴𑪵𑪶𑪷𑪸𑪹𑪺𑪻𑪼𑪽𑪾𑪿𑫀𑫁𑫂𑫃𑫄𑫅𑫆𑫇𑫈𑫉𑫊𑫋𑫌𑫍𑫎𑫏𑫐𑫑𑫒𑫓𑫔𑫕𑫖𑫗𑫘𑫙𑫚𑫛𑫜𑫝𑫞𑫟𑫠𑫡𑫢𑫣𑫤𑫥𑫦𑫧𑫨𑫩𑫪𑫫𑫬𑫭𑫮𑫯𑫰𑫱𑫲𑫳𑫴𑫵𑫶𑫷𑫸𑫹𑫺𑫻𑫼𑫽𑫾𑫿𑬀𑬁𑬂𑬃𑬄𑬅𑬆𑬇𑬈𑬉𑬊𑬋𑬌𑬍𑬎𑬏𑬐𑬑𑬒𑬓𑬔𑬕𑬖𑬗𑬘𑬙𑬚𑬛𑬜𑬝𑬞𑬟𑬠𑬡𑬢𑬣𑬤𑬥𑬦𑬧𑬨𑬩𑬪𑬫𑬬𑬭𑬮𑬯𑬰𑬱𑬲𑬳𑬴𑬵𑬶𑬷𑬸



사/원/탐/방

수행과

실천의

도량, 법천사



▲ 사진 = ① 법천사 전경 ② 법을 전하는 주교 범경 정사 ③ 법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④ 자성일 법회

# 법(法)이 샘솟는(泉) 도량, 법천사(法泉寺)



▲ 법천사 약도

### 법천사 오시는 길:

- ▶ 지하철 : 분당선(선릉역)이동 모란역에서 하차후 5번출구로 나와 버스이동
- ▶ 버스 : 아튼빌 아파트 후문 정류장 하차

(일반) 57, 55, 55-1, 60, 88, 350, 500-5, 31-3, 31-2 (간선) 302(마을) 3-3, 3-6

### 법(法)이 샘솟는(泉) 도량, 법천사(法泉寺)

서원당에서 부처님 말씀이 소리가 들린다. 범경 정사의 목소리 위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는다. 범경 정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천사는 법(法)자에 샘(泉)자를 사용하여, 법이 샘솟는 사원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걸맞게 법천사의 보살들은 주교가 법을 전하면 법을 실천하지 않는 법이 없으며, 계속해서 불자다운 모습으로 정진하는 것에 힘쓴다. 보살들의 신심이 깊고 올곧으며, 모두가 정진에 열심이다.

### 불교의 호국정신이 어우러진 남한산성

법천사와 아주 가까이 남한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봄에는 보살들과 함께 꽃구경도 가고, 교구 모임이 있을 때는 산행도 하며 비정기적으로 나들이도 자주 나간다고 한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산성이다. 흔히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의 도성인 한양의 방어를 위하여 쌓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

장성의 옛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성 축조와 건축물 설립 부역에는 대개 승군이 동원되었다. 인조는 승도청을 두고 각성대사를 도총섭으로 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해 항마군이라 했다. 이미 있던 망월사·옥정사 외에 국경사·동림사·개원사·천주사·장경사 등 7개의 사찰을 추가로 건립하여 모두 9개의 사찰에 승군들을 머물게 하면서 훈련과 수도방위에 만전을 기했다. 성을 따라 돌다보면 곳곳에서 절을 만났으니 남한산성 전체가 도량인 듯하다고 전한다.

국경사·개원사·천주사 등 절 이름에서 풍기듯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안위하는' 절들이었다. 지금은 대개 폐허가 되었지만 이들 절에서 공동체생활을 하며 머문 수많은 승군은 수도방위뿐만 아니라 행궁과 산성 축조의 힘든 부역을 도맡아 해낸 주역이었다.

### 법천사의 어제와 오늘

현재 법천사를 다니는 보살들은 법천사가 생기기 전 동대문의 밀인사에 다녔던 보살들이 아주 많다. 성남에서 동대문까지의 거리가 꽤 먼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니는 보살들의 노고에 감탄을 자아낸다.

그 노고에 종단에서는 성남의 신도들을 위해 법천사를 개설했다. 당시 밀인사 법장화 스승님이 종령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 성사되었다. 법장화 스승께

서 법천사 개설의 일등 공신이다. 초기에는 상대원 등의 작은 주택에 2층 전세를 내어 절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넘치는 신도들과 신심 깊은 보살님들의 공덕으로 현재의 위치에 어엿한 절의 형태를 갖춘 법천사를 완공하게 되었다.

법천사의 초대 주교인 상지화 스승은 주교로 오래 있으면서 초기 법천사의 터를 닦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후 시정 정사와 원만원 전수께서 큰 불사를 하였다. 바로 만다라와 본존, 단집과 불단을 새로 조성한 것이다. 현재 주교인 범경 정사는 2012년 부임하여 사원 경내를 새롭게 단장하고 깔끔한 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근 동국대 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아 교리공부와 실천하는 승직자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천사는 경기 남부지역의 중심사찰로, 가까이서 분당에서, 멀리서는 용인 안성 이전 수원에서 오는 보살들도 있다. 법천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절에 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다는 것이다. 연세 많은 보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부모세대부터 그 부모세대의 부모세대까지 존재하는데, 모두 가족제도가 잘 이루어진 까닭이다.

월초불공과 자성일이 되면 법천사의 공양처는 늘 시끌벅적하다. 공양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님들이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

## 법을 전하는 사람과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 사진 = ⑤ 가을 산행 ⑥ 만다라 봉안 불사 ⑦ 애기 보살의 합장례

느라 분주하다. 회장 보살을 중심으로 모든 보살들이 십시일반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님들이 보시행과 출선수법으로 공양준비를 해오고 있다.

### 법을 전하는 사람과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다

법천사 신정회 김경숙 회장은 "설법 시간이 기다려

집니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부처님 말씀을 범경 정사님께서 쉽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설법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듣고도 금방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부처님의 말씀이 제 몸과 마음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변화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평소 성격이 예민하여 신경이 날 곤두서있는 편인데 어느 날 부터 굉장히 온화해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회장은 스스로를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라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원장의 무게를 타인에게 내색하지 않으며,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원의 모든 보살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법천사의 봄은 유달리 아름답다. 몇 해 전부터 신도 모두가 힘을 모아 화단을 가꾸어 왔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갈 정도라고 하니 올해 봄의 법천사가 더욱 기대

된다. 인터뷰를 마치고 범경 정사는 "모든 분들이 꾸준하게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한 신도들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교화라고 생각한다. 각 가정에 재난이 없고 모든 서원이 이루어 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취재·박설라

주교 : 범경정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 15 (하대원동 133-4)  
전화 : 031-751-8685



천수심 (김정숙)

# 크게 바라지 않고, 늘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공한다

## 어머니를 따라입교하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사원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는 나보다 어린 동생을 등에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사원에 다니셨다.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종조남께서 죽비를 치던 모습과 소리다. 어린 마음에 저렇게 소리가 크게 나도록 강하게 치면 손이 아프지 않을까하고 걱정했던 것도 기억난다. 또 그 당시엔 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냉장고만 한 크기의 아주 큰 종이에 직접 반야성경이나 문구를 적어 걸어놓고 읽었다. 보살님께서 긴 매나무 작대기로 그 종이 위의 글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 덕에 글을 아주 빨리 깨우쳤다.

국민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아는 것이 아주 놀랄만한 일일던 시절이었었는데, 나와 오빠들이 모두 부처님의 말씀으로 한글을 일찍 깨우친 탓에 동네에서는 일찍이

수재나 천재로 소문이 났었다. 그래서 소문이 무색하지 않도록 오빠는 열심히 해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고, 동생은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머니가 학업과 관련해서 불공드리고 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점점 자라면서 사원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얼굴만 잠깐 비추는 정도로 지냈다. 학교,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원에 제대로 가지 않았다. 첫 아기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다시 총지중을 찾았다. 그런데 사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만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 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나에게는 그런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참 불만스러워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다. 그랬더니 어머니

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래? 왜 박수를 받고 싶은데?”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결실하게 바라는 것이 없었다. 어떤 것을 분명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막상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야.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아픈 것을 전제로 하고, 부자를 바라는 것은 가난을 전제로 하는 거란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어딘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은 아니었다.

**불공은 공덕을 차곡차곡 쌓는 것**

내가 수긍하지 않자 어머니는 웃으며 다시 나를 타이르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내가 하는 불공은 예금, 적금 같은

거야. 당장은 쓸 곳이 없지만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두는 거지. 나중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어때?” 나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큰 애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나의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며 불공을 할게”라고 말씀하셨고 아이의 시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회계사 시험은 최소 3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큰 애는 어찌 된 일인지 공부를 시작하고 2년 만에 합격을 했다. 아마 어머니가 쌓아둔 공덕 예금을 나의 아들에게 몽땅 주시고 가신게 아닌 가 생각된다.

하지만 회계사의 삶은 고단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퇴근했다. 집은 분양이고 회사는 강남역 삼동이라 새벽에 퇴근 할 때면 총알택시를 타야 해서 굉장히 위험했다.

그렇게 밤낮 없는 생활이 1년 정도 지나고, 아들은 “공부를 더 해서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가려면 경력이 5년 이상은 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과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다. 불안한 일이 있으면 아들은 항상 나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그날도 내게 얘기했다. “엄마,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 일까? 난 잘못된 게 없는데...” 라고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너무 걱정하지 마. 별 일 아닐 거야” 라고 아들을 달래고 곧장 불공을 했다.

나도 걱정이 되어 불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염주를 돌리고 염송을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환희심과 편안함이 몰려왔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불공을 끝내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기쁜 소식이었다. 정말 갑작스레 아들이 프랑스로 발령이 난 것이다. 원래 2년치는

해외발령이 안 되는데 프랑스로 할 줄이는 이유만으로 발탁되었다고 했다. 아들은 외교를 다니며 프랑스로 전공했다.

꼭만 같은 아들의 프랑스로 생활 2년 정도의 근무를 했다. 현재는 결혼하여 골든만 삭스에 입사하여 홍콩에 거주 중이다.

**현재의 감사하는 마음**

이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신기할 정도로 잘 풀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다. 어머니와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예금과 그에 붙은 이자까지 전부 손자가 사용한 것이 아닐까. 지금도 불공 할 때 무언가를 크게 바라지는 않는다. 오직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열심히 불공한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라이팅: 박철라



연화정 (장인숙)

# 회사는 빠르고 효과 좋은 진통제

##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는 권유에 입교하다

총지중 입교를 법천사에서 시작하여 줄곧 법천사만 34년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총지중을 소개해주신 분은, 한양사 보살님이라고, 부동산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그 보살님께만 유독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원에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저를 보며, 한양사 보살님은 “시는 게 힘든 일이지만 마음 붙이는 데에만 한 톨이 없으니 한 번 같이 열심히 다녀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팔려고 내놓은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가지 않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맑아졌습니다. 구경삼아 사원에 다녀 오던 날, 내놓은 점포에 대해 문의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하루에 한 통도 울까 말까 하던 전화였기에 반갑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날부터 나는 세 살짜리 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눈여겨보니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게 보였습니다. 앞에 앉은 보살님께 물어보니 “회사라고 하는 건데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조금씩 떼어다 넣으면서 서원을 하면 회사없이 서원하는 거랑 다르다는 것을 느껴질 거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유명 명승지에 놀러가서도, 연못 같은 데에 동전 하나 던져보지 않았던 저였기에 회사라는 개념이 참 익숙지 않았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마 지폐는 넣지 못하고, 백 원이나 십 원짜리 동전만 골라서 넣곤 했습니다. 어느 설법시간에 회사를 하면, 경제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오백 원짜리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동전들을 모아다가 일요일만 되면 쏟아 붓곤 했습니다. 보살님이 “장보살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회사금 넣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딸랑거리는 동전소리가 사원 서원당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바깥양반이 택시운전수였는데, 택시에 놓여둔 동전들도 한 움큼씩 쥐고서 회사금으로 넣

었습니다. 남편은 ‘동전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으며 고개를 가웃거리며 모르는 척 하며 동전으로 열심히 회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집을 내놓으면 금방 금방 나가곤 했습니다.

**무구(無垢)하고 신실(信實)하게 믿은 결과는 명징(明證)하게 나타나다**

한 번은 용자를 많이 낚는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스승님을 붙잡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급히 팔지 않으면, 대출 받은 게 많아서 살림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불공을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쌓여진 돈을 회사함에 넣고 스승님과 함께 세 시간을 앉아 불공했습니다. 이튿날,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불공을 하고 회사를 하면 원하던 것이 금방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무구(無垢)하고 신실(信實)하게 부처님의 힘을 믿고, 또 간절했기에 더 결과가 명징

(明證)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이하게도 마음이 소홀해지거나 나타낼 때면, 꿈에 스승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염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공에 더 정진을 하라는 법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절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불교라서 싫었다기 보다는 종교를 가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면, 염주를 뜯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 듣고 다니는 염주는 일곱 번째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보내 후, 남편을 위해 천도불공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불공을 마치는 날, 남편이 꿈에 나타나 그대를 타고 있었습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남편의 법문이었는데, 더욱 감회가 새롭고 기쁨이 베풀었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서원은,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뻐서 사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 없고 있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불공은 괴로움을 덜어준다**

돈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공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그 돈을 자신의 오빠에게 용돈해준 모양인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벌인 사업이 부도나서 바람에 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노래지고 깜깜했습니다.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니 전혀 되지 않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빌려주었던 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다음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소를 얻게 된 저는 당장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지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날부터 지인을 위한 불공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듯이 인연이 닿지 않

은 곳이 없다는 설법이 기억났습니다. 지인의 조상 불공까지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를 떼어서 회사를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6년이 됩니다. 6년 간 이자까지 합해서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는 큰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지인을 미워하지 않고 불공하였기에, 불공과 회사의 공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크게 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오고 감에 있어 마음이 크게 다칠 일도 적게 다치고, 속이 썩을 일도 무난히 흘러가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살기에 각박한 세상,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 좋은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상하는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과 회사와 함께하면 괴로움이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돈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회사와 불공은 참으로 효과 빠른 좋은 진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라이팅: 황보정미

## 법천사 교도

**깨끗한 생활 레시피**

# Dr. Puri

닥터퓨리

### 닥터퓨리로 깨끗하게 숨쉬세요!

- 닥터퓨리 KF80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 닥터퓨리 KF94 쿠션필터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 닥터퓨리 KF94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NEW
- 닥터퓨리 소프트터치 건강 마스크

drpuri.co.kr

(주)케이엠  
 청정용품, 안전용품 1등 소평몰 cleanqplus.com  
 깨끗한 레시피, 닥터퓨리 drpuri.co.kr  
 456-843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47 (구 보체리 348-1번지)  
 TEL:031-678-8763 FAX:031-678-8888, MOBILE:010-9740-1218  
 E-mail:jungsh@kmbiz.com

경조화환 꽃바구니, 전국꽃배달 서비스  
**크린큐플러스**  
 꽃배달 서비스

cleanqplus.com | 1661-2662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 경전의 가르침과 일상생활

## 경전의 말씀은 일상(日常) 가운데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불교 총지종의 소의경전이다. 이 경은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의 공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전 4권으로 이루어진 경전 가운데 항상 나를 일깨우는 경문의 구절이 하나 있다. 입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주뻗서고 정신이 번쩍 든다. 경전(經典)은 이렇게 설하고 있다.

『만약 상주(常住)하는 곳의 재물과 기름, 삼베(麻), 쌀, 콩 등을 훔쳐 사용한 자는 아귀취(餓鬼趣)에 떨어져서 머리카락이 엉클어지고 몸의 털은 모두 일어서고, 배는 산(山)과 같이 크고,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으며, 불타고 말라서 단지 해골만이 남는데, 그사람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보(果報)를 받게 된다. ...중략... 만약 승단(僧團)과 스승을 경만(輕慢)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빈천(貧賤)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는 불구(不具)의 몸으로 곱추나얇은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몸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는 병(病)도 많아 야위어 손발이 구부러지고 절룩거리며, 얇은뱀이 되어 고통피가 그 몸에 흘러내려서 육신의 삶은 떨어질 것이다. 백 천 만 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과보(果報)를 받을 것이다.

만약 상주(常住)하는 곳의 땅을 도둑질하여 사용하는 자는 대호규지옥(大號叫地獄) 중에 떨어져서, 입은 쇠덩어리(鐵丸)를 물고, 입술과 치아(齒牙)는 끊어지고 부러지며, 목구멍은 모두 타서 문드러져 험해, 심장(心臟)과 간장(肝臟), 장(腸)과 위(胃)는 타서 녹고 온몸이 불로 찌지는 것과 같이 된다. ...중략... 업력(業力)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지도 않고 전전(轉轉)하기를 거듭한다.

또 다른 자옥에 들어가서 삼점(三劫)이 경과하면, 그 사람은 다시 남섬부주(南瞻部洲)의 빈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몸은 장님이 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보(果報)를 받으니, 삼가 조심하여 상주지(常住地)나 재물(財物)을 도둑질 하여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만약 계(戒)를 얻거나, 공덕(功德)을 얻거나, 지혜(智慧)를 얻고자 한다면, 상주지(常住地)나 재물(財物)을 훔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치 불구덩이에 상주(常住)하는 것과 같고, 독약(毒藥)에 상주(常住)하는 것과 같다. 중단(重擔)의 독약(毒藥)과 같은 것은 능히 치료하여 구제(救濟)할 수 있지만, 만약 상주지(常住地)의 물건을 훔쳐 사용하는 자는 능히 구제할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과보인가. 부처님의 물건을 훔쳐서도 아니 되겠지만, 절대 함부로 가져가서도 아니 된다. 또한 아껴 쓰지 않고 낭비해서도 안된다.

위의 경전의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고 허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과법을 믿는 우리 불자로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얘기다.

종교인, 신앙심 등을 내걸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특히 공사(公私)에 있어 분명한 자세, 부정(不正)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따로 수행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다. 종교인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스스로 제어하고 방일하여 오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비유하면 소치는 사람이 체찍을 들고 소가 남의 밭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오근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오욕에는 끝이 없으므로 스스로 억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사나운 말을 재갈로써 제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끌고 깊은 함정에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오욕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 공사(公私)를 구분하는 것이 수행이다

요즘을 지도자들의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다. 경전에서 언급한 악업들을 죄의식 없이 막명으로 지었으니 그 과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끄러움과 과보는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태서 비롯된 것이다.

스스로 근신하지 못한 악업의 결과다. 어디 정지판만 그려만 한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 공중(公衆)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갖다 쓰거나 말없이 가져가는 것은 다만사다. 이는 투도(偷盜)나름이다.

불자라면, 남의 물건을 말할 것도 없고 공중의 물건을 자기 것인양 가져가서도 안되며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서도 아니 된다. 그것은 욕심과 탐심이다. 중생의 탐심이란 물건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다.

## 부정(不正)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다운 웰빙이다

매사에 자신 스스로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자신의 부정(不正)에 스스로 철퇴를 내려야만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 앞에서 떳떳한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정행(淨行)이라 한다. 정행은 깨끗한 삶이다.

청정지계(淸淨持戒)에서 가능한 일이다. 청정지계의 깨끗한 삶이 바로 바른 삶이다. 그것이 곧 웰빙이다.

웰빙은 유기농 채소와 건강식을 즐겨 먹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과 정신이 맑고 건강해야 참다운 웰빙이다.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자신을 체찍질 하고, 심선(心善)을 다하며, 선업을 지어 인격을 완성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악업을 짓지 않는 실천법이다.

위의 경문(經文)은 나의 생활법문(生活法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전의 가르침은 항상 일상(日常)에 있는 것이다.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 사자의 서 (2)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티벳 <사자의 서>는 사망 후 중음의 단계에 있는 망자들을 위한 경전이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유정들을 위한 경전이다. <사자의 서>는 생전에 죄악을 많이 지은 자들에게 대한 경고이다. 이름 높은 성직자라도 수행의 힘이 부족하면 중음의 단계에서 마음의 환영에 고통 받고 윤회에 떨어진다고 경고한다. 생전 유정의 의식은 자신의 육체와 깊이 결합되어 있다. 사망 후 육체와의 결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식은 자신에게 육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만들어 낸 자아를 여전히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중음의 단계에서 보이는 자아와 육체는 상상자 환영이다.

사후 유정들의 의식의 질은 사후에 전이된다. 마음을 담지 못한 부자의 사후에 후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제사를

지내주어도 부자가 선한 마음을 담지 못했다면 그의 사후여행은 고통과 공포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생전의 현실에서 그의 마음이 이웃이나 세상에 대해 이기와 소유의 마음만이 남아있다면 그는 이미 악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자의 서>는 사후의 세계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생전에 마음을 담을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던진다.

중국에 달마대사가 선불교를 개창한 후 당조의 선을 크게 발전했다. 당시 선 사들은 앉아서 입적하는 좌탈입명(坐脫入名)의 풍속이 크게 유행한 때도 있었다. 수행이 성숙하면 자신의 사망 시기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석가모니부터는 제자들에게 수식관(數息觀)을 지도하였는데 수

식관은 마음과 함께 명(命)과 풍(風)을 함께 관찰할 것을 설한다. 의식을 통해 생명의 온기를 나르는 풍을 관찰하면 죽음이 다가오면서 생명의 뿌리가 얼어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사자의 서>는 사후의 세계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생전에 마음을 담을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던진다

임종이 다가오면 징조에 대해 <사자의 서>에는 사대와 오온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설한다. 마치 집이 부서지는 것처럼 먼저 색은 가운데 지대가 해체되면 육체의 근골격계가 약화되어 서거나 걷기 힘들어진다. 수대가 해체되면서 몸의 진액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화대가 해

체되면서 몸의 체온조절이 불가능해진다. 풍대가 해체되면 몸의 순환계가 느려지면서 혈액의 순환과 호흡의 장애가 온다. 이때 즈음이면 죽음을 앞둔 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온이 해체될 때에 의계의 의식적 수용이 불가능해지고 상온이 해체되면서 기억의 연상작용이 불가능해진다. 행은이 분해될 때는 생전의 의식작용이 단절되고 식은이 분해될 때 비로소 의식과 명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정의 죽음이다.

그러나 의식은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으며 이때 임종자는 최초로 광명을 경험하게 된다. 사후에 일어나는 광명의 경험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비밀집회 판뜨라>는 광명에 대해 '법신의 빛이며 의식의 바다'라고 설명하였다.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순수한 빛인 것이다. 유정은 생전에 표층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사후에는 중음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지배영역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사자가 최초 경험하는 광명은 법신의 광명이다.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면 광명을 보자마자 본성임을 알아차리고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광명의 지속시간도 길다. 그러나 수행이 부족하면 광명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시간도 짧다.

광명을 체험한 후 육체 전신에 퍼져있던 생명의 기운은 육체 중심에 소재한 중맥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의식과 함께 육체로부터 빠져 나가는데 수행이 높으면 의식은 정수리의 범혈을 통해 빠져 나간다. 반면 삼악도에 떨어질 경우 육체의 다른 위치를 통과해 빠져 나간다. 사자의 죽음 후 육체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을 가늠하면 그가 사후에 경험할 세계를 짐작한다고 한다. 육체를 빠져 나온 사자는 완전한 중음신을 이루게 된다. 이때 중음신은 환신이라 부른다. 그것은 실제의 몸이 아닌 의식이 만들어 낸 가상의 몸이라는 뜻이다. 이때 사자는 두 번째 광명

## 사자의 죽음 후 육체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을 가늠하면 그가 사후에 경험할 세계를 짐작한다고 한다

을 경험하게 되며 해탈의 두 번째 기회를 마주한다. 평소 자신이 만들어 낸 의식적 환상으로부터 본성을 경험할 절호의 빈틈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광명보다 지속시간은 짧다. 이때부터 육신은 비로소 부패하기 시작한다.

<사자의 서>에 남겨진 나머지 여정은 마음의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의 해체이며 자신이 생전에 남겨놓은 의식적 흔적을 미주하면서 공포와 도피, 또는 환희와 행복을 경험하면서 악도나 천상, 또는 부다가 거주하는 정토로의 재탄생과정을 설한다. <사자의 서>는 빠드마삼바와가 탐구한 사후세계의 기록이다. 그러나 <사자의 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불가피한 현상이나 사후세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마치 여행사와 같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많은 참조가 되는 안내서이다. <사자의 서>는 한 가지 교훈을 남긴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생전 의식이 사후에 영화처럼 펼쳐질 사후여행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 『신양큐비스』

##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 큐비클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 ♣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화장실 내부 칸막이(견본)



## 대표 김한옥 (법천사교도)

연락처 010-8953-230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36-5  
Tel. 031)355-6961~2



동해중 소식

동해중학교 어머니독서회 창립 15주년 맞아

졸업 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와 같은 삶을 생활해 달라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는 2018년 3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해 동해중학교 어머니독서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다. 2003년도 3월 2일에 창립한 이래 어머니독서회는 질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어머니독서회는 자녀들에게 좋은 책 선물하기 행사를 비롯하여 독서테마 기획 및 문학기행, 이해인, 정호승 시인 등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한 문인 초청 특강, 각 분야별 석학들인 전문가를 초청한 초청강연회, 진로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본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합동 만남의 장 등을 통해 소통과 나눔

의 시간을 가져왔다. 또한 어머니독서회 활동을 통한 학부모님들의 간접지도와 관심으로 본교 학생들의 독서활동에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독서관련 각종대회에 참여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한 초석이 되기도 했다. 전국에서 과학 독서탐구대회에서 두 번이나 대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중학생 독서토론투대회에서도 대상을 세 번이나 차지하고 대통령기 전국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학부모님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좋은 양서를 많이 갖춘 동해중학교 도서관 조성 문화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쾌거라고 믿고 있다. 2018년 어머니독서회 창립 15주년을 계기로 어머니독서회는 금년에는 회원이 101명으로 늘어난 전국 최고의 어머니독서회가 되었다. 2018년도 회장에는 손효진님(3년 김상

운 어머니), 총무는 조진화님(2년 신희재 어머니), 학년별 부회장은 1년 부회장은 이윤정님(1년 권재현 어머니), 2년 부회장은 박경숙님(2년 김계석 어머니), 3년 부회장은 장미경님(3년 황보석현 어머니)께서 수고를 해주기로 하였다. 2018년 첫 모임이자 창립총회에서는 학교장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이어서 2018학년도에 달라지는 학교 사업 설명과 학교 정책사업을 소개하고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의 궁금증과 관련된 질의 응답 및 친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어머니독서회는 활동을 폭넓게 넓혀서 봉사활동 및 지역교회에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교의 공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 홍보대사 역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원한 동해 교육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작년 출생아수 35만명...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역대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5만명대로 추락해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 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 감소한 35만7천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970년대만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9만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40만명대로 추락하면서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쳤다. 한 해 출생아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세계에서 한세대에 만 출생아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하면서 1.05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11.4%) 줄어 들었다. 여성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20대 후반(25~29세) 47.8명, 30대 초반(30~34세) 97.7명, 30대 후반(35~39세)은 48.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6명(15.2%), 12.4명(11.3%), 1.5명(3.1%)씩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40대 초반(40~44세)은 6.0명으로 전년보다 0.1명(1.7%) 늘어났다. 출산율을 연령대로 비교하면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30대 후반 순이었다. 10년 전에는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29.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감소세를 봐도 첫째아(-12.0%), 둘째아(-11.9%), 셋째아 이상(-12.4%)이 모두 두 자릿수로 급감했다. 윤수지 기자



성폭력 방지 위한 불교계 대책 마련 시급

범계 및 중범과 계율 등 엄히 적용 처벌해야 예방교육, 인식전환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고은 시인, 이윤택 예술감독, 안희정 前 충남지사 등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교육계와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중이다. 그 속도는 생각보다 거세고 빠르다. 자고 일어나면 속속 폭로되는 성폭력 피해 사례들은 위계 내지 위력 관계를 이용해 힘 가진 사람이 약한 아랫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비단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는 3만건에 육박하는 2만 9289건이다. 이중 3분의 1 가량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최근 미투 운동에 개신교의 목사, 가톨릭의 사제 등이 언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그동안 종교계 내에서 성 문제를 터부시하며 성폭력 방지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던 점이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에 소속된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유명 신부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해를 좀 해달라'며 해외서 선교활동을 함께 하던 자원봉사 여성 신자를 성폭력하려 해서 중격을 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가 그런 사실을 다른 신부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7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최근 미투(Me too)운동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한다. 힘든 결심을 실행에 옮긴 피해 여성 신도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신부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며, 교구 내 성폭력 전수 조사와 함께 신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도 함께 요구했다. 성직자의 성폭력은 비단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불교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성폭력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된다. 기본적으로 젠더가 매개된 폭력현상이다. 우리가 흔히 '감히 여자가'라고는 말하지만 '감히 남자가'라고는 말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성직자의 여성 신도 성폭력은 젠더뿐만 아니라 신분, 연령, 직위 등 다층적인 억압 장치들이 매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별 위계가 신분 위계와 연결되어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은 불교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성폭력은 누구든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금치한 불교계에서 성담론을 활성화해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여성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대상, 또는 극복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불교의 이미지를 더럽힌 대상, 스님을 유혹한 이 등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대중들의 인식도 고쳐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피해자들을 보듬어 주는 돌봄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중단 내 관련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불교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불교계 출가자의 성폭력은 가해자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는 수행공동체를 파괴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불법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계율과 중범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중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출가자는 바라이죄와 승잔죄 등의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범죄자는 결코 중단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중범으로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시민사회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야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미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피해자가 왜 불교계는 나오지 않느냐고 묻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지를 물어야 한다. 혹시 모jom에서 성희롱 발언을 못들은 척 한 것은 아닌지, 성추행을 장난이나 놀이로 한 것은 아닌지, 여성 비하 발언을 재미있다고 여쭈운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미투 운동을 확산시켜 출가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부터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 미투 운동, 이제 빨리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비만이 암 부른다 20개 암 중 6개 발생요인 확인

BMI(체질량지수)의 증가가 20개 암 중 6개 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확인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25 이상으로 높으면 비만으로 본다. BMI가 비만과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기능자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BMI 증가와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총 20개 암(백혈병, 다발골수종,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콩팥세포암종, 악성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식도암, 뇌종양과 중추신경계 중앙, 유방암, 대장암, 담낭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의 8개 암은 BMI의 증가와 관련성이 약한(weak) 근거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방광암, 위암, 전립선암의 3개 암은 BMI의 증가와 해당 암 발생 사이에 아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평가했다. 박민정 기자

이 결과 BMI의 증가는 백혈병, 다발골수종,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콩팥세포암종(신장암)의 6개 암에서 확실히만(Convincing)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악성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식도암의 3개 암은 BMI의 증가가 암 시적(Suggestive)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암시적 위험은 확실히만(Convincing)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암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다. 뇌-중추신경계 중앙, 유방암, 대장암, 담낭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의 8개 암은 BMI의 증가와 관련성이 약한(weak) 근거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방광암, 위암, 전립선암의 3개 암은 BMI의 증가와 해당 암 발생 사이에 아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평가했다. 박민정 기자

Infographic titled '보통보통 봄이 오면 걱정되는 미세먼지 OX 퀴즈로 알아봄!' (When spring comes, I'm worried about fine dust. Let's know OX quiz!). It includes a quiz with 5 questions about fine dust, its health effects, and prevention methods. The quiz questions are: 1. Fine dust is very small and can't be seen with the naked eye. (X) 2. 50-70% of fine dust is generated in our country. (X) 3. Fine dust concentration is higher in the morning. (O) 4. Fine dust concentration is higher in the morning. (O) 5. Fine dust concentration is higher in the morning. (O). The infographic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the health effects of fine dust and various prevention measures like wearing masks and staying indoors.



### 절기 이야기



곡우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곡우의 의미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를 지게 한다”는 뜻이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래서 “곡우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가 좋지 않다”,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같은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전한다.

속담처럼 곡우는 농사의 첫 시작으로 매우 귀하게 여겼다. 한편 이시기에 자연이 주는 먹거리 또한 풍성해지는 시기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나무에 본격적으로 물이 오르는 때여서 고로쇠물이나 자작나무

## 곡우

삼일사 주교 남혜 정사

수액인 “거자수”를 마시러 산에 오르는데 이를 “곡우물 마시기”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서해에서 잡히는 조기는 특별히 맛이 좋아 “곡우살이”라 하였고, 섬진강에 알을 낳기 위해 황어가 올라 왔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물고기 등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 같은 문양이 있는 까닭에 “가사어”라고도 불렀다. 범패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한 진감선사가 쌍계사에 머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범패를 연구하던 중 섬진강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본 따 우리나라 범패의 음계를 정했다고 전해진다.

곡우가 되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범패를 담근다. 한편 범패를 담아두었던 가마니는 술가지로 덮어둔다.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게 하여 악귀를 몰아낸 다음 집 안에 들고, 집 안에 들어와서도 범패를 보지 않게 한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범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씩이 잘리지 않아 그해 농사를 망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이날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놓아 잡귀를 몰아낸 다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날은 부부가 함께 지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토신(土神)이 질투하여 쪽정이 농사를 짓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곡우에 무명을 갈거나 물을 맞기도 하는데, 이날 물을 맞으면 여름철에 더위를 모르며 신경통이 낫는다고 한다.

경남 남해에서는 이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인천 용진에서는 이날 비가 오면 샘구멍이 막힌다고 하는데, 이는 기쁨이 든다는 말이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곡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해 농사가 좋고, 비가 적게 오면 가물어서 흉년이 든다고 하며, 전북 순창에서도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고 여긴다. 이런 날씨점을 통해서도 풍년을 기원하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곡우는 차(茶)의 절기이다. 우전은 곡우 5일전 이른 봄에 탄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하는데, 가장 처음 탄 찻잎으로 만들었다고 해 “첫물차”라고도 한다. 녹차 종류의 하나인 우전은 여러 차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은하고 순한 맛이 특징이며, 만들기가 복잡하고 생산량이 적은 매우 고급차이다.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우전차를 만드는 시기가 곡우 무렵으로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차 문화 행사가 열린다. 특히, 곡우날 전남 백양사에서 곡우다례제가 열리는데 이때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차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는 감로수로 알려져 있다.

## 감사와 행복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경택 교수

감사는 정서(emotion), 태도(attitude), 도덕성(moral virtue), 습관(habit), 성격 특성(personality trait), 대처 반응(coping response)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다.

감사는 느낄 감(感)과 사례할 사(謝)로 구성된 한자어로 국어사전에는 첫째,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둘째,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으로 정의된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인 gratitude는 라틴어 gratia로부터 기원하였다.

Gratia는 grace, graciousness, gratefulness 등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생성되는 용어는 친절(kindness), 관대(generosity), 재능(gifts), 상부상조의 미덕(the beauty of giving and receiving) 등이 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도움을 인식하고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 데 이러한 정서 상태의 일반화된 경향성을 감사 성향(grateful disposition)이라고 한다.

감사를 보는 관점으로는 성격, 기분, 도덕적 정서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감사의 정의, 하위요인 및 증진 방법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권선 등(2006)의 연구에서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최상 차원의 성격인 우호성 및 외향성이 높아지고 정서 민감성(neuroticism)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감사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심리 문제(우울, 불안, 고독)를 적게 경험하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의 취약성 요소로

알려져 있는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 민감성도 낮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 특성(의향성, 우호성, 성실성, 긍정적 정서성, 낙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와 안녕감 또한 높다는 것이다.

즉,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감사가 유쾌한 심리 상태이며, 긍정 정서, 행복, 자부심, 희망을 높여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겔럽(1998)은 미국의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거나 “대체로 행복하다”는 응답을 했음을 보고하였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으로 해석하기 쉬운 상황을 만나도 그 안에 긍정적인 특성을 찾고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Enmons 등(2008)과 Seligman 등(2005)은 감사 프로그램(감사일기 쓰기, 감사 목록 작성하기, 감사 표현하기)을 통해 생활 만족도 및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일간 매일 24시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본 뒤 감사해야 할 항목을 찾아 기록한 후, 감사 대상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저자: 데이빗 J. 스미스 & 웨라 암스트롱의 부분 발췌)

지구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데이빗 J. 스미스와 웨라 암스트롱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감사는 단순한 정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분을 형성하며 나아가 성격특성으로 형성된다.

지금 잠시 주위를 돌아보고 지나간 일을 반추해보고 감사한 일 혹은 감사한 사람이 떠오르면, 감사한 일과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①

## 梅蘭菊竹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수상

**태점 (苔點) :** 줄기(몸통)와 가지의 거친 표면을 점으로 크고 작게, 점과 점의 거리 변화 등을 표현하는 것. 부러진 가지, 죽은 가지 등을 표현한 것도 일종의 태점. 태점을 꽃그리기 전에 그리거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그리기도 한다. 그리는 순서는 달리하여도 무방하다.

**약지 (若枝) :** 위로 곧게 하늘을 향해 뻗은 새로 나온 가지를 약지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나란히 그리거나 길이를 같게 그리면 안된다.

**꽃그리기(꽃인, 꽃술, 꽃반침)**  
매화꽃은 빗꽃처럼 많이 피는 꽃이 아니다. 그래서 꽃을 표현할 때 너무 많이 그리면 안된다. 꽃은 꽃잎, 꽃술, 꽃반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꽃망울 터뜨린 것, 피기 시작한 것, 반쯤 핀 것, 다 핀 것, 활짝핀 것 등으로 나뉜다. 꽃잎은 담묵으로 그리고, 꽃술 및 꽃반침은 농묵으로 그린다. 꽃잎 그리는 방법에는 일필법, 이필법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 볼 내용: 아주 특별한 실험**

어떤 사람이 한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만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둘러서 현관을 만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멍뭍뭍치 나와서 그 돈을 집어 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만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둘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훑어져라 바라보며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그 이후 마을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은 매일 만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세기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만원을 받는 일은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공짜로 만원을 받는 것처럼, 감사해야 할 일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개천사교도

버섯요리 전문점

# 버섯마을

MENU

버섯생불고기	버섯전골	버섯낙지전골	버섯냉면
--------	------	--------	------

☎ | 053)422-9965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348-2

※ 첫째, 넷째 일요일 휴무



# 왕불심 유식(唯識), 모든 것은 오직 초교리학 마음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체험 안에서 유식의 기본개념인 알라야식이나 말나식이 생겨난 것이다. 유식학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유가행파(瑜伽行派)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요가의 현역이다. 즉 유식은 불교적인 요가수행을 오래 동안 쌓아오면서 이루어진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유식학은 방대한 문헌을 가진 엄밀하고 복잡한 이론체제로 변화했지만 초기에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습득한 체험적인 지혜였던 것이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같은 대상도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여덟층으로 나는 인간의 마음구조, 유식불교의 8식(識) 구조론

절대적 초월자에 의한 구원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구원과 깨달음을 찾고자 했던 고타마 싯타르타로부터 시작한 불교의 마음공부는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수행자들에 의해 조직화, 논리화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한층 더 체계화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식불교이다.

유식(唯識)은 위즈나프티 마트라(vijñāna pi-mātra)의 번역이다. Vijñāna는 '마음 작용', mātra는 '오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유식이란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경험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가지 감각 기관(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과 그것을 종합하여 판단, 분별하는 마음(識)의 인식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원인을 말나식과 알라야식을 더해 인간의 마음을 8식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불교 유식이다.

유식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알라야"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원시경전

인 아함경에도 있으므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다.

물론 유식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알라야는 akaya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저장'을 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인식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곳이 여덟 번째 마음, 알라야식인 것이다.

그래서 유식불교는 인간의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이 인식하는 다섯 가지 생각(前五識)과 이것들을 분별 판단하는 여섯 번째 생각(六識)에 말나식(七識)과 알라야식(八識)을 더해 여덟 개의 마음구조, 즉 8식 구조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불교심층심리학이 확립된 것이다.

본래의 유식은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체험적 지혜였다.

불교가 유식을 논리화 하고, 이론화, 체계화 하여 유식불교라는 장르로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 왔지만 보다 넓은 시야에서 말한다면 유식은 인도 수행의 전통 안에서 생겨난 학문이다.

인도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좌선, 명상, 요가수행 등의 긴 역사와 심오한 전통이 있는 수행방법들이 있다. 붓다 이전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들의 실제 수행의

유식불교에서는 눈앞에 일어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인간 내면의 반응을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행복이나 불행뿐만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표출이나 좋고 싫음의 감정도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같은 대상이나 사건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보내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헌신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키우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삶을 포기해 버리는 아내도 있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따라서 마음의 실체를 규명하면 모든 정신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갈등과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알 수 있으며 결국은 갈등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 대한 문제는 지식이나 이론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지적 이해만으로 가능하다면 자기실현은 정말 쉬운 것이며 집착을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매우 간단할 것이다.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고통과 갈등은 오직 각자의 경험과 통찰 그리고 수행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합동 통신원 회의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통신원 회의가 3월 1일 자석사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도회 선생님께 다도와 차문화에 관한 원고를 부탁하여 많은 이들이 다도를 즐길 수 있도록 하

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통신원들이 더 노력하여 통신원 수를 늘리도록 하자. 통신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명장을 수여해주면 더 힘이 날 것 같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정각사 = 한미옥



## 정각사 문화센터 한국화반 봄나들이

지난 3월 21일 정각사 문화센터 한국화반 수강생들이 광양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꽃축제를 돌면서 봄마중을 하고 왔다. 하루 일정으로 봄꽃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왔다.

섬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새하얀 꽃잎의 매화 군락지와 지리산 자락을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인 구례 산수유꽃축제를 돌면서 축제의 즐거움과 힐링 시간을 가졌다. 정각사 = 한미옥



## 3월 12일 서울, 경기 남부연합 합창단 월례회의

전국 불교합창단 산하 서울 경기 남부연합 합창단은 월례회의를 통하여 4월 17일 '국가지도자 조찬법회'에 합창단 1,000명 정도 참석 예정임

을 알렸다. 또한 행복바라밀 문화축제가 4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합창단 임원수련회가 마곡사 불교

수련원에서 개최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니 합창단장 = 최영아

## 팔공산 부처님

- 권순복(단양사)

알알이 맺힌 맑은 얼음꽃으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님이시여 청정하고 유리알 같은 마음을 열라 하십니다.

모든 것의 암시에 또 다른 열매를 맺어 주시니 혼탁으로 물들여진 맘 다시 살피라 하십니다. 나무 약사여래불

- <결혼 축하합니다> 신랑 박상우(충지사 백지순 장남) 4월 15일 단양사 박기홍 영천중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자석사 이승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신수희 보살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신순희 보살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단양사 유종선 초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 <입학을 축하합니다> 정각사 안효주, 허승아, 박창윤 초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 충지만평

김홍균 작가

더 밝은 세상을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35번길 4 양지동복지회관  
교육상담 : 031) 734-0574

불교충지종사회복지재단

#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성남시 국공립 양지어린이집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원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47년 4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서원당
- 문의 :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인선